



韓日 로타리, 변화를 만들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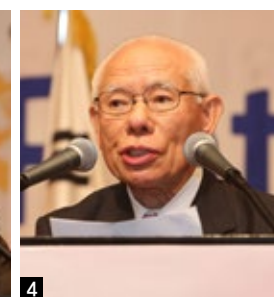
제14회 韓日친선회의 개최, 양국 로타리안 1천여명 참석,
우리 지구 160명 참가, 주관지구로서 행사 성공 주도

'韓日로타리, 변화를 만들자'라는 주제로 국제로타리 韓日 친선위원회(위원장 채희병 전RI이사)가 주관한 '제14회 韓日친선회의'가 한국과 일본의 로타리안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 23일,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제14회 韓日친선회의에는 채희병 한일친선위원장(前 RI이사)과 이동진 국제로타리 전회장, 윤상구 전RI이사, 이순동 총재 등 우리 지구 총재단을 비롯한 한국로타리 19개 지구 회원 및 가족들이 참석했으며, 일본 측에서는 다나카 사쿠지 전RI회장과 이치카와 이사오 일한친선위원

장(RI2750지구 前총재) 등 일본 로타리 총재단을 비롯한 일본 로타리안과 가족 476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또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축사를, 조동성 인천대학교 총장이 특강을 펼치며 행사를 빛냈다.

이날 행사는 채희병 한일친선위원장의 개회사, 이치카와 이사오 일한친선위원장의 축사, 이순동 총재의 주관지구 총재 환영사,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 이동진 전 RI회장, 다나카 사쿠지 전RI회장의 축사가 이어졌고, 공로자 표창과 한일 양국 친선위원 소개, 우봉제 한일친선 부위원장(3750지구 전총재)의 한일로타리 현황보고, 조동성



1. 채희병 한일친선회의의 의장 2. 이치카와 이사오 일한친선 위원장 3. 이동진 전 RI회장의 축사 4. 다나카 사쿠지 전 RI회장의 축사 5.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 6. 오자와 가즈히코 전 RI이사의 건배사 7. 조동성 인천대 총장의 특별강연 8. 이순동 3650지구 총재의 주관지구 총재 환영사 9. 로타리기와 한일 양국기 입장식

인천대 총장의 특별강연 등으로 진행됐다.

채희병 한일친선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일친선 회의는 1982년 처음 시작되어 35년이라는 세월동안 한일 양국의 친선과 우정을 도모하며 양국 클럽간 자매결연과 청소년교환, 국제봉사사업 등 많은 성과를 올려왔다"고 밝히고 "이제 한일 양국은 격동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미래지

향적 파트너 동지로서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행사가 한일 양국의 유대를 더욱 깊이하고, 상호이해와 우호를 기초로 세계평화와 번영에 함께 협력하고 공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행사의 주관지구 총재로서 환영사를 한 이순동 총재는 "한일친선회의는 한일 양국의 로타리안들이 쌓아온 친선과 우정, 그리고 폭넓은 교류활동을 되새기고 보다 나은 관계를 지향하며 로타리 세계를 양국이 주도해



1. 사회를 맡은 서창우 3지역 대표와 고상은 서울예장RC 회원 2. 이종원 전총재의 영부인 정정자 여사가 맡은 한국전통 다도시연 3. 다과봉사를 펼친 서울새노원RC 회원들 4. 칸노 다리오 전 RI이사의 100세 생신을 축하하는 한일 로타리안들 5. 2017~18년도 각 지구 총재단의 기념촬영 6. 제14회 한일친선회의의 유공 표창을 받은 일본 로타리안들 7. 리틀엔젤스 합창단과 기념촬영



가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는 만남"이라며 "한일 양국의 평화가 곧 아시아의 평화, 더 나아가 세계 평화의 초석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로타리안들이 인류의 행복과 세계 평화를 위해 더욱 정진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부원고 브라스밴드의 식전공연과 상명양상블의 공연, 리틀엔젤스 예술단, 이마에스트리 앙상블의 만찬공연, 물푸레 리틀렉트클럽 합창단의 우정의 집 공연 등 다양한 공연프로그램들이 선보여 흥을 더했다. 우리 3650지구는 이번 제14회 한일친선회의에 160명이 등록하여 한국로타리 19개 지구 중 가장 많은 등록 인원을 기록했으며, 이순동 총재가 주관지구 총재로, 또한 문덕환 전총재가 한일친선회의의 사무총장으로 이번 회의를 주도한 것을 비롯, 서창우 3지역대표와 고상은 서울예장RC 회원이 행사 사회를 맡는 등 행사 전반에 우리 지구 회원들의 활약이 빛났다.





아울러 서울SRS로타리클럽(회장 박명서) 합창단이 한일 양국 국가와 로타리송 제창을 했고, 서울새노원RC(회장 권연옥) 회원들은 다과 및 음료지원 활동을 펼쳤다.

또한 이종원 전총재의 영부인인 정정자 여사가 소속된 예진원이 주관하고 전옥경 국제봉사위원장, 김정호 여성위원장이 참여하여 우정의 집에서 한국 전통 다도시연을 펼쳐 한일 양국 로타리안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아울러 우리 지구 로타랙트 지구임원 및 서울, 송실남산 로타랙트클럽 회원들이 일어통역 및 안내 요원으로 참가하는 등 우리 지구 많은 회원들이 이번 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